

5 이론을 실천으로 : 프랑스교회에 나타난 칼빈의 교회론¹⁾

번역 및 논찬 이정숙 교수 / 웨슬리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존 칼빈은 16세기의 탁월한 신학자들 중 하나이다. 칼빈의 유산 중 이러한 측면은 오랫동안 또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교회를 재조직하는 데 대단한,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질을 보여 주었다. 교회의 재조직과 관련하여 칼빈의 공헌은 실질적이며 중요한 것이지만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해 왔다. 특별히 제네바 이외의 지역의 공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나는 칼빈의 공헌 중 이러한 면, 즉 그의 교회론과 그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칼빈은 교회의 제도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부터 시작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교회의 제도들을 개혁할 때 이루고자 애썼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제도개혁을 위해 그가 한 활동들의 신학적 근거들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또 어느 정도나 실행에 옮겨졌는가? 교

1. 본 글은 제9차 세계칼빈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레이몬드 멘처(Raymond A. Mentzer)가 쓴 "Theory in Practice : Calvin's Ecclesiology in the French Churches"를 번역한 것이며, 마지막에 역자의 저자 및 논문소개를 첨부하였다.

회론의 영역에서 칼빈의 디자인과 성과들이 제네바 이외의 개혁주의 교회, 특별히 그의 모국인 프랑스 개혁교회의 운영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었는가? 혹 프랑스 개혁교회에 의해 제도화된 칼빈의 교회론이 어떤 측면에서 그의 이론적 모델에 더 가깝다거나, ‘더 자유롭다거나’ 혹은 ‘더 순수한’ 형태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칼빈은 직접, 간접으로 교회의 행정 및 조직(polity)에 대해 할 말이 아주 많았다. 분명히 형가리와 같은 곳은 예외였지만 초기 현대 개혁주의 교회 구조의 기본적인 요소는 교회와 컨시스토리(consistory : 일부 ‘당회’라고도 번역하나 현재 당회의 개념은 16세기 컨시스토리와 성격상 매우 다르게 구성되고 운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역자는 컨시스토리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사용함을 밝혀 둔다 – 역자 주)에 있었다. 제네바 외에서 컨시스토리는 행정 및 준법률기관에 해당하는데, 그 교회의 안수 받은 목사와 장로로 봉사하는 선출된 평신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정기적인 스케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주에 한 번 모였다. 이들은 교회의 행정에 관련된 사항과 사회보조 프로그램을 감독했지만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도덕적 통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컨시스토리를 통한 훈련과 치리(discipline)의 강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성만찬을 앞두고 신자들을 구별할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바른 믿음과 적절한 행동으로 자격이 검증된 사람들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개혁주의 공동체들이 컨시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 초점은 교회의 훈련과 치리, 도덕적 통제를 넘어서 교회의 유지관리, 재정관계, 빙자구호관리로 넓혀졌다.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들의 또 다른 건강한 특징은 대회(시노드<synod>) : 현재 우리나라 장로교회에는 없는 장로교 지역관합 단위로 노회와 총회 사이에 있는 조직이다 – 역자 주)와 콜로퀴(colloquy) :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위인데, Colloquy of Poissy처럼 특정 그룹

이 모이는 회의로도 이해할 수 있다.)들인데 이것들은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힘이 되어 주었다. 놀랍게도 칼빈은 개별교회를 위한 장치를 넘어서 교회의 행정을 위해 잘 발전된 디자인을 정교화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명히 대회를 위한 행정과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기독교 강요」²⁾에 그의 코멘트들은 이 주제에 관하여서는 거의 침묵을 지킨다. 프랑스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서 제한되었지만³⁾ 간혹 나타난 관찰들을 제외하고는 그가 대회라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적은 결코 없다. 더구나 제네바에는 대회가 없었다. 개혁주의에서 이러한 교회 모임들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나타났지만, 연이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코틀랜드교회는 비록 변형되기는 했지만 비슷한 시스템을 시행했다. 개혁주의 대회 조직과 행정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은 중요하기에 밀착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분야에 관해서는 ‘Actes des Synodes nationaux des glises reformes de France’(프랑스 개혁교회의 국가적 대회 행전)를 준비하고 있는 베나드 루셀(Bernard Roussel)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하여 나보다 훨씬 더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다만 다음 몇 가지, 컨시스토리에 관한 것, 지역교회 안에서 그것의 위치,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펼쳐진 장치들, 그리고 더 나아가 16세기와 17세기의 프랑스개혁주의 교회 내에서 실행되었던 칼빈의 아이디어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이제 교회의 훈련과 치리, 그리고 컨시스토리에 관하여 칼빈이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2. Inst. 4. 7, 8 and 4.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ed. John T. McNeill ; trans. Ford Lewis Battles ; 2 vol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0), 1126–1127 and 1166–1179.

3. 한 예로 다음의 글을 보시오. “Calvin aux fidèles de France,”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 59 vols. ; Brunswick : C. A. Schwetschke, 1863–1900), 17 : 710–716.

훈련과 치리의 강화는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일차적 기능이었고, 교회의 훈련은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칼빈은 참교회의 표지는 설교되어지고 들려지는 설교 말씀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행해지는 성만찬이라고 주장했다. 훈련은 비록 성도의 표지였고 지상교회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 표지와 함께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539년에 사돌레토(Sadolet) 추기경과의 변론에서 교회의 사도적 모델에 대해 언급하면서 칼빈은 교회의 안전은 세 가지 요소, 즉 교리, 훈련과 치리, 그리고 성례전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⁴⁾ 테오도르 베자와 존 녹스와 같은 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덕을 함양하고 죄를 처벌하는 훈련과 치리를 접근하는데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다.⁵⁾ 추가적으로 1560년 스코틀랜드 고백(Scot Confession)과 1561년의 벨직 고백(Belgic Confession)은 훈련과 치리를 하나의 표지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훈련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상징이자 확실한 표시이고, 후자는 그것을 참교회를 알기 위한 세 가지 표지 중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다.⁶⁾

칼빈은 반복적으로 훈련과 치리를 교회의 신경(sinews)이라고 특징지으면서⁷⁾ 그의 복음서 주석(Harmonium Evangelica)은 컨시스토리에

-
4. John Calvin and Jacopo Sadolet, *A Reformation Debate*(ed. John C. Olin New York : Harper and Row, 1966), 63. 칼빈은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4.1.10에서 "Symbola ecclesia dignoscendae, verbi praedicationem sacramentorumque observationem posuimus," Calvin, *Calvini Opera*, 2 : 754.
 5. Théodore de Bèze, *Confession de la foy chrestienne, contenant la confirmation d'icelle, et la refutation des superstitions contraires*(Geneva : Conrad Badius, 1559), 156–157 ; John Knox, *The forme of prayers and ministration of Sacraments, etc, used in the English Congregation of Geneva*(Geneva : Jean Crespin, 1556), 39. Glenn Sunshine, "Discipline as the Third Mark of the Church : Three Views," *Calvin Theological Journal* 33(1998) : 469–480.
 6. Scots Confession, article 18. Belgic Confession, article 29.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6th ed. ; 3 vols. ; Grand Rapids : Baker, 1998, reprint of 1931 New York edition), 3 : 419–420 and 461–462.

의한 실천을 위해 분명하고도 성경에 근거한 칭의(혹은 '의화', Justification)를 말하고 있다.⁸⁾ 핵심적인 성경 본문은 예수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친 마태복음 18 : 15~17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밑줄 부분은 역자의 것).

칼빈은 예수가 "교회에 말하라."는 중요한 말을 하실 때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교 기관, 즉 사제와 평신도로 구성된 법정이었던 산헤드린을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았다.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개혁주의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훈련과 치리를 집행하는 교회 기관으로서 적절한 형태이다.⁹⁾

이러한 아이디어는 1541년 교회 헌법의 분명한 명제인 제네바의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과 함께 실행되었다.¹⁰⁾ 이 법령을 기초하는 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칼빈은 정확하고 간단한 요약을 제공했다.

-
7. 예로써 다음을 보시오. John Calvin, Inst. 4.12.1, in *Calvini Opera*, 2 : 905.
 8. John Calvin, *Harmonium Evangelica*, in *Calvini Opera*, 45 : 514–515.
 9. Robert M. Kingdon, "La discipline ecclésiastique vue de Zurich et Genève au temps de la Réformation : l'usage de Matthieu 18, 15–17 par les réformateurs,"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133(2001) : 343–355.
 10. For their complete text : "Ordonnances ecclasiastiques," in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vol 1, 1546–1553(ed. Robert M. Kingdon and Jean-François Bergier Geneva : Droz, 1964), 1–13. "Ecclesiastical Ordinances," in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ed. and trans. Philip Edgcumbe Hughes ; Grand Rapids, Michigan : W. B. Eerdmans, 1966) : 35–49.

첫째로,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네 가지 직제, 즉 목사, 둘째로는 교사(doctors), 세 번째로 장로…… 그리고 네 번째는 집사를 세웠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질서가 잘 잡히고 그 전체성을 잘 유지하는 교회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같은 형태의 교회 직제를 지켜야 한다.

“교회법령”이 네 가지 직분, 각각의 책무 혹은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형제를 훈련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직분, 박사나 교사들은 “신자들에게 견전한 교리를 가르친다.” 실제로 박사들은 로잔아카데미나 후에 세워진 제네바아카데미 같은 교육기관에서 미래의 목사들을 가르친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같은 목적으로 6개 이상의 아카데미를 만들었다.¹¹⁾ 제네바 교회법령에 의하면 장로들은 비록 논쟁 가능한 책무이긴 하지만 “각 사람의 생활을 살펴보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권면하고 (필요한 경우) 형제처럼 훈련하고 치리하는” 특별한 책무를 가졌다. 네 번째로 집사는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회중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법령의 마지막 부분은 컨시스토리를 다루었는데 “목사와 장로들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 교회에 어떤 무질서가 있는지, 만약 그럴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는지에 대해 의논한다.” 본문은 또한 컨시스토리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잘못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사항들을 제공하고 적절한 교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교회들이 1550년대 후반과 1560년대 초기에 조직되기 시작하

11. Karin Maag, *Seminary or University?: The Genevan Academy and Reformed Higher Education, 1560–1620*(Aldershot : Ashgate, 1996) ; idem, “The Huguenot Academies : Preparing for an Uncertain Future,” in *Society and Culture in the Huguenot World, 1559–1685*(ed. Raymond A. Mentzer and Andrew Spicer ;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39–156.

였을 때 교회지도자들은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다른 글들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다수는 제네바를 방문하고 거기서 공부했기에 컨시스토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일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일단 교회와 컨시스토리가 세워지자 프랑스 목사들과 장로들은 칼빈에게 컨시스토리의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그들의 질문은 예를 들면 컨시스토리로 소환된 개인들이 선서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칼빈의 대답은 컨시스토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컨시스토리에서) 진리를 말해야 함을 인식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컨시스토리를 일반 법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연결된 주제로 판사나 다른 법조계 인사와 같은 도시의 관료들이 장로로 봉사하도록 뽑는 것은 허락된 일인가? 칼빈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경우 컨시스토리는 그 개인이 시와 교회의 직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고 대답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교회들의 제도적 구조는 프랑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칼빈에 의해 제시되고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론적인 모델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프랑스 목사들과 장로들은 이 제도를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에 맞추어 상당한 정도 조정하여 실천하였다. 컨시스토리의 조직, 절차, 그리고 법적 구속력조차도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기구 사이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이즈, 사회 구조, 그리고 정치적 헌법을 반영하고 있다. 제네바는 비교적 동질의 부르주아층에 속하는 의회원들이 중첩적으로 들어가 있는 몇 개의 시의회가 다스리는 작은 자치도시였다. 종교개혁과 함께 개혁주의 기독교는 제네바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아주 크고 다양한 나라였다. 서구유럽의 군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고 인구

12. *Calvini Opera*, 19 : 245–246.

가 많은 나라였다. 프랑스는 거대한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외교적, 군사적 능력도 있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톨릭 국가였다. 개신교는 16세기 말에도 6% 내지는 7% 정도였고, 결코 소수 그룹 이상이 된 적은 없었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차이점은 동일한 기독교 신앙과 전통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각 지역의 개혁주의 교회는 각자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제네바 “교회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프랑스에는 프랑스 개혁교회의 「성도훈련과 치리」(*Discipline of the Reformed Churches of France*—이하 *Discipline*)가 있었다. 이것은 제네바 “교회법령”보다 더 길고 더 광범위한 문서였다. 이것은 내적으로 조직적인 면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대회(synod)는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그때그때 개선하고, 수정하며, 정교화하였다. 특별히 가시 돋친 질문들은 종종 지역교회 교인들에게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콜로퀴와 지방대회를 통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Discipline*에서 포함하고 있는 해결 방책을 정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으로 올라갔다.¹³⁾ 첫 번째 국가 대회 대표들은 1559년 파리에서 비밀리에 만나 국가전역에 적용 가능한 *Discipline*의 초벌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규칙과 관습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모든 교회는 최신판의 *Discipline*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컨시스토리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이 내용을 숙지해야 했다. 장로와 집사들은 보통 선출 시 또 재임 시에 신앙고백서(*Confession de foi*)와 *Discipline*에 서명해야 했다. 그들은 두 문서에 담긴 내용들을 잘 따를 것을 약속했다. 궁극적으로 두 문서는 그들의 활동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공하였다.

제네바 교회법령과 유사하게 프랑스 *Discipline*은 사중직에 대해서

13. 더 나은 판들 중에 Isaac d'Huisseau, *La Discipline des Eglises réformées de France ou l'ordre par lequel elles sont conduites et gouvernées* (Geneva, 1666)과 François Méjan, *Discipline de l'Eglise Réformée de France annotée et précédée d'une introduction*(Paris : Éditions "Je Sers," 1947)이 있다.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목사, 박사, 장로, 집사의 직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조심스럽게 논하고, 선출 과정과 각 직위에 연결된 책무를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의 제도적 구조를 다루면서 지방과 국가 차원에서 컨시스토리, 콜로퀴, 대회에 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Discipline*은 예전, 즉 예배의 방법과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성례를 집행하는 법, 그리고 결혼에 관한 세세한 조항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밝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죄인들을 처벌하는 교회권위에 대하여 조언을 주고 있다.

프랑스 국가대회가 신앙고백과 같은 기본 신앙에 관한 지침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나, *Discipline*을 통해 나라 전체 교회의 질서를 수립하는 것, 복잡한 분쟁들을 종식시키는 등의 책무를 감당한 것은 지속성과 통일성을 진흥시키는 데 기본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었다. 지역 교회들은 특별히 개혁 초기 동안 자신들의 독자적인 *Discipline*을 만들었다. 바유(Bayeux)와 생로(Saint-Lô) 지역의 *Discipline*은 둘 다 1563년에 쓰여졌고, 님(Nîmes)에는 그 후에 만들어졌는데(1580년 중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음.) 전체 국가를 위한 *Discipline*과 매우 유사하다. 동시에 이 문서들은 교회의 여러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지침에 대한 지역의 필요를 만족시켰다.¹⁴⁾ ‘Police de l’Église réformée de Bayeux’(바유개혁교회의 규정)은 학교교사직의 역할과 더불어 목사,

14. Robert M. Kingdon, Raymond A. Mentzer, and Michel Reulos, “Disciplines réformées du XVI^e siècle français : une découverte faite aux Etats-Unis,”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130(1984) : 69–86. Michel Reulos, “Police et discipline de l’Église de Saint-Lô(1563),” in “Les débuts des communautés réformées dans l’actuel Département de la Manche(Cotentin et Avranches),” in *Réforme et Contre-réforme en Normandie*, special issue of *Revue du Département de la Manche* 24(1982, fascicules 93–94–95) : 31–61. Archives Départementales, Gard, 42 J 28, fois 372–375.

장로, 집사직에 대한 길고 상세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Discipline*과 전국적 신앙고백은 박사직에 대해 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대신 교리학습과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지역 아카데미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수준의 교육적인 관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¹⁵⁾ 바유교회 직제에 관한 다른 사항들은 세례와 성만찬, 컨시스토리의 치리, 결혼, 환자심방, 장례에 관한 것이다. ‘*Discipline de l'Église de Saint-Lô*’(생로 교회의 훈련과 치리서)는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문서이다. 다른 문제들 가운데서 치리권은 전적으로 목사와 장로들만의 책임으로 소개되어¹⁶⁾ 대부분의 프랑스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연관되어 있는 집사들을 제외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생로 교회의 직제는 교회 내에서 시의회의원들의 역할을 가까이서 정리해 주는 프랑스 개혁교회의 *Discipline*이었다. 시관계자들은 훈련과 치리를 강화했는데, 예를 들어 술집들이 설교 시간 동안에는 문을 닫을 수 있게 조치했는데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Mémoire de l'ordre qu'on tient au consistoire de Nîmes*(님 컨시스토리가 결정한 직제에 관한 비망록)은 대부분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훨씬 더 간결한 문서이다. 이 세 종류의 문서는 전 국가적 *Discipline*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역적인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분명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직제에 관한 님 교회의 비망록은 목사들이 조직적으로 순번을 따라 컨시스토리를 인도한 것이 분명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일치리 순서들을 정하고, 빈자를 위한 기금의 모금과 사용, 시립 학교(*collège*)의 특정 심방

15. 예를 들자면 프랑스신앙고백(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은 목사(pasteurs), 장로(surveillants), 그리고 집사(diacres)만을 언급하고 있다.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3 : 376.

16. “Singulièrement les Ministres et Anciens veilleront et s'enquerront des scandales de l'Église pour les reprendre et censurer…….” Reulos, “Police et discipline de l'Église de Saint-Lô,” *Revue du Département de la Manche* 24(1982, fascicules 93–94–95) : 50.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를 통틀어 보면 교회와 시 권위와의 관계는 심오한 영향 관계에 있다. 제네바시의 헌법에서 컨시스토리는 실제적으로 시정부의 위원회였다.¹⁷⁾ 다른 것들도 있지만 컨시스토리가 매일 시를 다스리는 소의회(the Small Council)에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추가로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섬기는 열두 명의 장로들은 시를 다스리는 의회의 등급에 따라 선출되었다.¹⁸⁾ 그들은 정치적 관리로서 공동체의 종교적 개혁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반면 목사들은 칼빈의 지도하에 강단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정규적으로 설교했고 매주 학습교육을 하였다. 장로들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변화를 감독하였고, 종교적 습관과 현신적인 실천을 교육시키는 데 애썼다. 목사들과 장로들이 사회를 개혁하는 데 함께 일했지만, 후자는 특별히 컨시스토리의 업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었다. 제네바시의 가장 중요한 관료인 네 명의 최고의원(syndic) 중의 한 명이 장로의 직분으로(1561년 이전에는 장로의 직분으로가 아니라 최고의원의 직분이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 역사 주) 매주 컨시스토리 회의를 주관하였다. 결정적인 개혁은 정치적인 반향을 가졌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의원들에게는 폭넓은 실천적 지식과 잘 연마된 정치적 기술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시를 다스리는 관료들은 종교개혁을 살피고 감독하기를 소망하였다. 이것은 결국 그들 공동체의 안정과 안녕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개혁교회와 군주국가 간의 협력적인 연합의 부재는 컨시스토리의 조직에 아주 다른 분위기를 주었다. 개신교교회와 가톨릭 왕

17. Robert M. Kingdon, “Nostalgia for Catholic Rituals in Calvin's Geneva,” in *Grenzgänge der Theologie Professor Alexandre Ganoczy zum 75. Geburtstag*(ed. Otmar Meuffels ; Münster : LIT Verlag, 2004), 209.

18. “Ordonnances Ecclésiastiques,”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1 : 7.

위 간의 반목적이고 종종 폭력적이기도 한 관계를 고려하여 개혁교회 사역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는 변화 들을 만드는 데 상대적으로 고삐를 느슨하게 하였다. 왕은 대체적으로 교회를 감시하는 것보다 교회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위그노 귀족들은 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을 위해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였다. 유사하게도 위그노들이 통제하던 도시들과 동네의 시의원들 역시 그 일에 관심을 쏟았다. 비록 16세기 후반부에 메이루에 이(Meyrueis)에서 장로로 섬겼던 귀족들과 여러 명의 시의원들¹⁹⁾과 같은 예외가 있긴 했지만, 봉건 영주거나 도시 귀족(patrician)이든 정치적 엘리트들은 컨시스토리에 봉사하지 않는 추세였다. 확실한 것은 장로들은 상인들, 변호사, 의사, 그리고 풍요한 예술가들 중에 뽑힌 전문가들로서 막 부상하는 부르주아들이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실현되었던 장로들과 시의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프랑스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 더구나 제네바와 달리 장로보다는 목사가 컨시스토리 모임의 사회를 보았다. 프랑스 (교회의) 장로들은 신자들의 도덕적 복지를 살펴보았고, 집사들과 함께 교회의 재정적 안전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책임을 나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동안 목사들은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데 일차적 지도력을 가졌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동양식을 재조정하였다. 일부 목사들은 불쾌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극도로 주장하는 자세를 지닌 자들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카마레(Camarès)에 있었던 베르나르 콘스탕(Bernard Constans) 목사는 ‘죄’에 관한 자신의 나름의 목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라도 혹 그가

19. Bibliothèque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Paris, Ms 453, fols 76v–77 and 86. Janine Garrisson, Protestants du Midi 1559–1598(Toulouse Privat, 1980), 95, 이 자료는 님, 몬토방,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봉사했던 귀족들과 시관리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주관하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았다.²⁰⁾

제네바와 프랑스의 정치적 헌법 간의 차이점은 중요한 결과를 만들었다. 제네바의 소의회는 세금을 거두고 목사들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회재정을 다루었다.²¹⁾ 사실 이 소의회는 목사를 임용하고 파면하였다. 시정부는 종교적인 개혁에 결정적인 법을 제정하였고 컨시스토리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통제하였다.²²⁾ 한편 프랑스 개혁주의 교회는 실제로 국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지 않고 목사들의 임면에 있어서 완전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가 목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미한다. 17세기 동안 많은 프랑스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목사의 월급을 지불하는 것에 관해 종종 과도할 정도로 논쟁적인 토론을 하였다. 목사들은 종종 항상 지불연체상태가 있었던 그들의 월급이 지불되지 않으면 새로운 목회자를 찾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목사들은 이 싸움에서 졌고, 프랑스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25퍼센트의 월급감봉, 즉 일반적으로 연간 400리브레 내지는 300리브레로 감봉되는 것을 감수하도록 요구 받았다.

프랑스 컨시스토리들은 공동체의 개혁에 있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둘 다에 대해 독자적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비행에 대하여 의심가는 죄인들과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반면 제네바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은 가장 내 말싸움, 예배(설교)에 참석하지 않은 것, 도박, 댄스와 성문란행

20. Bibliothèque de l'Arsenal, Paris, Ms 6563, Registre du consistoire de Pont-de-Camarès, fols 62v–63.

21. Robert M. Kingdon, “Catechesis in Calvin's Geneva,” in *Educating People of Faith*(ed. John Van Engen Grand Rapids : Eerdmans, 2004), 298.

22. Thomas A. Lambert,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the Reformation in Sixteenth-Century Geneva(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 University of Wisconsin, 1998), 17–18.

위 등의 죄를 지어 도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폭넓은 처벌을 나름대로 부과하였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와 시정부는 여러 가지의 교정적 벌금을 적용하는 데 서로 협력하였다.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말로 견책을 받고, 공적으로 그 일에 대해 보상을 하게 하고, 출교(수찬정지)를 당하며, 벌금, 투옥, 추방과 신체적 처벌을 포함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정부로 넘겨지게 되어 있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간음을 범한 남녀를 발견하였을 때, 시정부는 이를 추방하거나 실행에 처하기도 하였다.²³⁾ 프랑스 컨시스토리는 같은 잘못에 대하여 확실한 말로 그들을 나무란 반면, 벌은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부과하였다. 국가로부터 받는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프랑스교회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떤 벌을 부과한다든가 투옥을 요청하고 추방을 추천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개혁주의 종교지도자들과 세속정부의 협력은 대개 카스트르(Castres)와 라 로셸(La Rochelle), 몽토방(Montauban), 그리고 님(Nîmes)과 같은 주요 개신교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협력은 컨시스토리와 시의회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음한 자나 이와 유사한 범죄자에 대해 서로 알려 주며, 각 기구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처벌로서 범죄자들을 벌하는 것이었다.²⁴⁾ 예를 들어, 1590년대에는 몽토방에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간음으로 기소되어 컨시스토리뿐만 아니라 시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시법무부에 의해 컨시스토리의 치리대상에 들어오게 된 듯하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착수는 시법무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러 번에 걸쳐 몽토방 컨시스토리는 분명하게 장로들에게 시 재판 기록을 살펴보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보고하도록

23.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24. Raymond A. Mentzer, "Morals and Moral Regulation in Protestant Franc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31 : 1(Summer, 2000) : 1-20.

지시했다. 컨시스토리는 후에 피고와 심문에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였고 교회 차원에서 적절한 벌을 부과하였다.²⁵⁾ 이와 유사한 공동의 노력은 다른 개신교 지역들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쪽으로는 님(Nîmes)시의 컨시스토리와 시관리들이 도시의 도덕적 질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께 일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²⁶⁾ 거기서 교회의 권위자들은 음란한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 컨시스토리에 나타나면 후에 죄질에 따라 시권위가 처리하도록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를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에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출교, 즉 개인을 성례에서 특히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처벌 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전형적으로 목회적 상담과 컨시스토리의 권고가 회개와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할 경우에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했다. 교회와 국가 간에 긴밀한 관계(rapport)의 부재는 프랑스 컨시스토리가 이렇게 중한 교회처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컨시스토리들은 그들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출교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권위는 콜로퀴나 대회(synod)에 의해 도전 받을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국 독일과 스위스 도시국가들에서는 세속 행정관들이 출교에 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²⁷⁾ 사실 출교는 정치적, 시민적,

25. Archives Départementales, Tarn - et - Garonne, I 1, fols 163 and 328.

26. Philippe Chareyre, "The Great Difficulties One Must Bear to Follow Jesus Christ : Morality at Sixteenth-Century Nîmes," in *Sin and the Calvinists : Morals Control and the Consistory in the Reformed Tradition*(ed. Raymond A. Mentzer Kirksville, Mo. :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1994), 66 and 76.

27. 출교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 Michael Bruening, *Calvinism's First Battleground : Conflict and Reform in the Pays de Vaud, 1528-1559*(Dordrecht : Springer, 2005)이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파장을 가진 복잡한 문제였다.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 항상 잘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칼빈의 주장에 의해 시작된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출교의 권한을 가진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제네바 장로들은 정치적 관리들이었고 그들이 결정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간헐적으로 출교권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²⁸⁾ 1553년에 칼빈이 필리베르 베렐리어(Philip Berthelier)를 수찬정지사김으로 긴장이 발생하게 되었다.²⁹⁾ 베렐리어는 칼빈을 반대한 페린(Perrin)가에 속한 사람으로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갈등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국가 중에 어느 기구가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를 토론하는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성격을 드러낸 것이었다. 후에 17세기 초기에 오면 소의회는 다시 이 주제로 컨시스토리를 도전하였다.³⁰⁾ 프랑스 컨시스토리들은 출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덜 구속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그 나름의 약점도 있었다. 프랑스의 개혁교회들은 남녀성도들을 성례전에서 제외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 권세들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후원이 없기에 그 효과는 점점 미미해졌다. 교회의 권위들은 회중들 가운데 출교

28. 독일 종교개혁 초기에서 소의회(The Small Council)는 개인은 신앙의 새로운 고백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출교당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권세는 그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William 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27.

29. 이 주제에 관하여는 다음을 보시오. Christian Grosse, *L'excommunication de Philibert Berthelier, Histoire d'un conflit d'identité aux premiers temps de la Réforme genevoise(1547-1555)*, (Geneva : Société d'Histoire et d'Archéologie de Genève, 1995).

30. Ibid., 184-185. Bernard Cottret, *Calvin : A Biography*(trans. M. Wallace McDonald :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and Edinburgh : T. and T. Clark, 2000), 195-196. Thomas Lambert,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222-223 and 250-255.

자와 비출교자 간의 사회적, 경제적 접촉을 제한하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컨시스토리는 출교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가 그들(출교자들)이 법정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을 금하였던 것을 컨시스토리는 적용할 수 없었다.³¹⁾ 프랑스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은 출교에 관한 광범위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결과는 점점 약해져 갔다.

컨시스토리의 구성은 국가별 개혁교회들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에서는 목사들과 장로들만 구성원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집사들이 포함되었는데, 물론 그들의 지위나 권리가 목사나 장로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많은 프랑스교회들은 여섯, 혹은 여덟, 혹은 그 이상의 장로들이 있었고 집사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었다. 님(Nîmes)과 같이 크고 중요한 개신교 지역에서 조차 장로 두 명당 한 명꼴의 집사가 있었다. 비록 집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프랑스 종교개혁 초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기능과 의무는 궁극적으로 제네바의 경우와 같은 것이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책무를 맡았는데, 집사라는 직분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현저하게 달랐다.

유럽 전체를 통해 개혁교회들은 엄청난 에너지와 재정적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돋는 데 배분하였다. 목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자신들을 배고픈 자들을 벼이고, 혈병은 자들을 입히고, 병자를 방문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보았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주변부에서 부랑자로서 살도록 허락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통합되어져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적절하게 감독을 받고 바른 기독교인의 덕목을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

31. Raymond A. Mentzer, "Marking the Taboo : Excommunication in French Reformed Churches," in *Sin and the Calvinists*, 97-128.

하자면 궁핍한 자들을 도우라는 도전에 대한 제네바와 프랑스교회의 응답의 차이는 컸다. 두 경우 다 집사들이 평신도 교회 직분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돋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였지만 그들은 매우 다른 제도적 범주 안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제네바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이 쓰여지기 전에 제네바는 종합병원(Hôpital Général)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세사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개혁한 것이었다. 빈곤구제금은 시권위의 통제하에서 사용되어졌다. 칼빈은 이러한 제도에 교회의 재가를 주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성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종합병원의 운영을 맡은 사람들을 집사로 정하였으나 제네바 목사들이나 컨시스토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았다.³²⁾

프랑스에서는 컨시스토리가 사회적인 도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관리하였다. 제네바의 종합병원처럼 분리된 기구를 세우기보다는 프랑스 컨시스토리들은 현금기금을 운영하였다. 대부분 프랑스교회들은 두 개의 분리된 기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목사들의 월급과 그와 연관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자는 빈자기금(bourse des pauvres)이었고, 후자는 교회기금(bourse de l'église)이었다. 모든 컨시스토리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청원서를 받았고, 그것을 심사하였다. 가진 자산이 얼마 되지 않았던 연고로 컨시스토리는 쏟아지는 청원에 대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컨시스토리는 집사들이 그 결정에 따라 일정한 방향의 행동을하도록 지도하였다.³³⁾

32.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1971) : 50–69.

33. Raymond A. Mentzer, “Organizational Endeavour and Charitable Impulse in Sixteenth-Century France: The Case of Protestant Nîmes,” *French History* 5(1991) : 1–29.

집사들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프랑스 컨시스토리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발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들의 의무는 장로들의 책임과 중복되기도 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다. 집사들은 때때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데 돋기도 하였고, 장로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집사와 장로 간의 일의 분업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었다.

컨시스토리의 주요 과제인 성도를 훈련하고 치리를 시행하는 것은 예배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일 년에 네 번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목사들은 보통 두 주 혹은 세 주 미리 광고하여 회중들에게 필요한 영적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어떤 교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쿠트라(Coutras)의 장로들은 성만찬이 실시되는 한 주일 전에 컨시스토리에 회중들 각 사람의 “삶의 모습, 도덕,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고하였다.³⁴⁾ 프랑스 개혁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컨시스토리가 악명 높은 죄인들과 출교자들을 불러서 성만찬 때까지의 준비 기간 동안 사면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이 거룩한 음식은 회개와 공동체와의 조화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순간이었다. 교회는 또한 이 준비 기간 동안 성인들에게 필수로 학습교육을 제공하였다. 대부분 프랑스교회에서는 장로들이 학습교육을 마친 자들에게 입장표(종이 전표, 다른 경우에는 납동전)를 나누어 주었다. 이 동전들은 성만찬 시에 성만찬상에서 혹은 교회문에서 거둬졌다. 누구도 이 입장표가 없으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³⁵⁾ 성만찬에 접근하는 것

34. Bibliothèque de l'Arsenal, Paris, Ms 6559, fol 13.

35. MM. Anjubault and H. Chardon, *Papier et registre du Consistoire de l'Eglise du Mans, réformée selon l'Evangile, 1560–1561(1561–1562 nouveau style)* (Le Mans : Ed. Monnoyer, 1867), 35–36. Raymond A. Mentzer, “The Printed Catechism and Religious Instruction in the

을 통제하는 동전의 사용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목적에 이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포이투(Poitou) 지역의 무공(Mougon) 교회는 세례와 결혼에까지 이 제도를 확장하였다. 무공에서는 교회에서 자신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증명으로 장로에게서 동전을 얻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아기를 세례에 데려올 수도 없었고, 자신의 결혼식을 차를 수도 없었다.³⁶⁾ 동시에 동전들은 프랑스 개혁교회들의 노력을 구별해 주는 또 다른 특징이었다.

사실은 칼빈은 제네바에서 바로 이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1560년 1월 말경에 칼빈과 피에르 비레(Pierre Viret)는 제네바의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관리하는 동전제도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제네바 소의회를 향하여 그들은 “교회가 성만찬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동전제도를 소개하자.”고 제안했다. 즉,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들만 동전을 받고 이 동전이 없이는 아무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에 소의회는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납동전을 나누어 주는” 아이디어를 강하게 거부하였다.³⁷⁾ 목사회(The Venerable Company of Pastors)는 17세기 초에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제네바 관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칼빈의 격려로³⁸⁾

French Reformed Churches,” in *Habent sua fata libelli. Books Have Their Own Destiny. Essays in Honor of Robert V. Schnucker*(ed. Robin B. Barnes, Robert A. Kolb and Paula L. Presley Kirksville, Mo. :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1998), 93–101.

36. Raymond A. Mentzer, “The Reformed Churches of France and the Visual Arts,” in *Seeing Beyond the Word : Visual Arts and the Calvinist Tradition*, ed. Paul Corby Finney, (Grand Rapids : Eerdmans, 1999), 221.

37. Archives d’État de Genève, *Registres des Conseils*, vol. 55(1559–1560), fol. 185(30 January 1560) and 186v(1 February 1560), *Calvini Opera*, 17 : 711.

38. *Calvini Opera*, 17 : 711.

1561년경에 프랑스의 개혁교회들은 복잡한 동전제도를 발전시켜 루이 14세가 자신의 왕국에서 개신교 예배를 금지한 한참 후인 18세기까지 사용하였다.

프랑스 개혁교회에 의해 사용된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단정적이기보다는 더 제안적인 것이다. 나는 이 논문이 제네바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칼빈의 모델을 수용했지만 그들의 특수한 환경에 맞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 수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를 바란다. 프랑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칼빈의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교회에 컨시스토리를 세웠으며, 칼빈이 제안한 사중직 직제를 소개하였다. 사중직 직분 중에서 박사직은 초기단계 이상으로는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교회의 권위는 칼빈이 그의 저작에서 말하고, 제네바 목회에서 실시한 다른 실천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교회들은 행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독립성을 즐겼기 때문에 그들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행하기에 도전적이고 불가능했던 요소들을 소개하는 데 상대적으로 제약 받지 않았다. 아마도 최고의 예는 프랑스교회들이 출교 시행과 성만찬 참여 동전을 사용하는 데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교회들은 또한 목사들과 장로들 같은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것이나 빙자구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디자인, 교회정책의 형성,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교회 질서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의 선포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도의 훈련과 치리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로서의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전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 군주제는 개혁교회의 존재 자체를 반대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내부 정책은 거의 무시하고 있었다. 왕들은 자주 개신교도들을 펍박하였고,

최고로 잘할 때는 그들의 존재를 묵인하였다. 분명하게 프랑스 개혁교회들은 근대교회가 성공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국가의 후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고, 그들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결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자체가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적인 프랑스교회가 다른 지역 유럽이 반대하거나 혀락하지 않았던 개신교의 정치적 권위의 우위를 장악하도록 해 주고 있다.

우리의 원래 질문에 답하자면 프랑스교회의 지위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프랑스교회는 칼빈이 생각한 교회의 조직과 기능을 실천에 옮기는 데 중요한 자유를 부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프랑스교회가) 다른 지역의 개혁교회보다 더 칼빈의 생각에 가까웠는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얹혀 있는 문제일 것이다.

논 찬

레이몬드 멘처 교수는 현재 미국 아이오와(Iowa) 주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의 종교학과 교수인데, 2001년부터는 Daniel J. Krumm(Maytag 전자제품회사의 회장) Family 석좌교수로 종교개혁 역사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1997년에 Sixteenth Century Studies Conference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멘처 교수는 16세기 유럽사를 다루는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단행본 시리즈)의 편집자이고, 16세기 유럽사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잡지인 *Sixteenth Century Journal*의 편집위원이다. 16세기 개신교사에서 사회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멘처 교수는 뉴욕에 있는 포담(Fordham University) 대학교에서 학부를 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역사학과에서 로버트 맥쿤 킹던(Robert M. Kingdon) 교수의 제자로 석사를 하고, 동교에서 1973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버트 킹던 박사는 한국선교사였던 맥쿤(George McCune) 선교사의 외손자이며, 일반 사학자지만 16세기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작업을 하였기에 1981년에는 미국 교회사학회의 회장으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그는 그의 취임연설에서 교회사학회가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제도에 관한 연구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그 하나의 실천으로 칼빈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킹던 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연구는 이 분야에서 독특하며 16세기 제네바의 사회상과 평신도들이 어느 정도 칼빈의 종교개혁을 공감하고 체화하였는지를 잘 보여 줌으로써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칼빈의 목회 성격과 내용,

그리고 컨시스토리를 통한 성도의 훈련과 권징의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는 데 탁월한 공로를 세웠다. 칭던 교수와 그의 제자들(대표적으로 제프리 와트<Jeffrey Watts> 교수를 들 수 있다.)이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 멘처 교수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가 프랑스 칼빈주의 교회와 위그노들에게서 어떻게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의 주요 연구서로는 *Society and Culture in the Huguenot World, 1559–1685*. Edited by Raymond Mentzer and Andrew Spicer(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Blood and Belief : Family Survival and Confessional Identity among the Provincial Huguenot Nobility*(Purdue University Press, 1994), *Sin and the Calvinists : Morals Control and the Consistory in the Reformed Tradition*, Editor. Sixteenth Century Essays and Studies 32. (Kirksville, Mo. :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1994. Second edition, 2002), *Heresy Proceeding in Languedoc, 1500–1560*. (Philadelphia, 1984)이 있고, 위그노와 프랑스의 칼빈주의 교회에 대한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이번 국제칼빈학회에서 멘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그동안 그가 연구한 프랑스 칼빈주의 교회들의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재정리하면서 먼저 칼빈의 교회론을 정리하여 동일한 교회론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두 개의 교회, 즉 프랑스교회와 제네바교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계 이민자였던 칼빈이 제네바교회의 목회자로서 시의회나 제네바 유자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워 갔다면, 프랑스에 있던 칼빈주의자 위그노들은 프랑스 정부의 개신교 박해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를 발전시켰다. 교회의 직제나 성도의 훈련과 치리(Church Discipline)의 경우 제네바교회와 프랑스 칼빈주의

교회는 칼빈의 신학을 공유하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서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신학은 목회의 자리, 신자들의 삶의 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라 하겠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 멘처 교수는 “프랑스 개혁교회에 의해 제도화된 칼빈의 교회론이 어떤 측면에서 그의 이론적 모델에 더 가깝다거나, ‘더 자유롭다거나’ 혹은 ‘더 순수한’ 형태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그는 프랑스에 있던 칼빈주의 교회는 국가의 협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실제로 칼빈의 신학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 받았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질문에 거의 “예.”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서 프랑스 개혁주의 교회는 제네바 컨시스토리와는 달리 출교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절대적 권위를 가졌고, 출교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표나 동전을 사용하여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철저하게 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에 프랑스교회가 집사를 포함한 것은 칼빈의 제시와는 다른 것이지만 집사들도 평신도 대표이라는 점과 빙자구호를 담당하면 집사의 직무를 생각할 때 컨시스토리의 기능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역자는 칼빈의 제네바에서 컨시스토리가 어떻게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실시하였는지 박사학위논문으로 쓰는 과정에서, 또 이후 칼빈주의 교회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레이몬드 교수의 연구서와 논문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은 바 있어 국제학술대회에서 멘처 교수를 직접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1998년 횃불선교센터에서 열렸던 세계칼빈학회에 참석한 것을 포함 세 번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멘처 교수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제네바보다는 프랑스교회를 집중연구하는 관계로 멘처 교

수의 국제학회발표논문은 제네바교회의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역자는 학회에서, 또 이후 이메일 교환에서 재고를 요청하였고, 레이몬드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정과 함께 기타 부분에 미미한 보완작업을 거친 후 원고를 재송고해 주었으며, 이 번역은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